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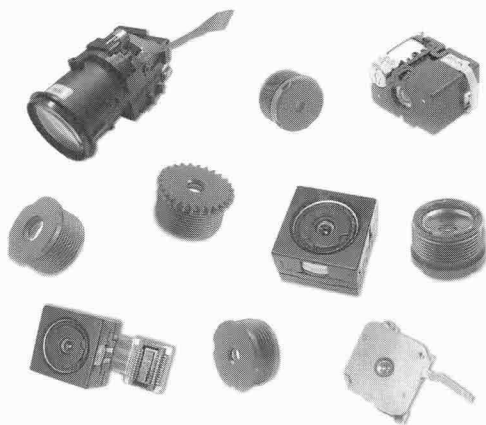
폰카메라 렌즈모듈사업의 안정적 기반위에 신규사업 추진 박차

광학렌즈모듈 전문업체 (주)디오스텍

카메라폰의 폭발적인 보급은 폰카메라 렌즈모듈 시장의 동반성장을 가져왔고 대부분 일본에 의존하던 기존의 광학렌즈 시장과 달리 폰카메라 렌즈분야에서는 국내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디오스텍(대표·박일, www.diostech.co.kr)은 설립 5년 만에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세계 시장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업체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올해 3월 허두철 사장의 뒤를 이어 박일 사장을 새로운 사령탑으로 맞은 디오스텍은 카메라폰 렌즈시장의 우위를 발판으로 신규시장에서의 '새로운 강자'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취재 | 박지연 기자

국내 폰카메라용 렌즈모듈시장에서 디오스텍을 능가하는 업체가 없다. 해를 거듭할수록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카메라폰의 수요에 힘입어 디오스텍의 진가는 더욱 발휘되는 듯 하다.



▶ 디오스텍의 제품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주요업체들이 지난해에서 올해로 넘어 오면서 1년 만에 물량이 2배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디오스텍은 국내 주요 카

메라모듈업체 대부분에 렌즈를 공급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팬택계열 등 국내 빅3 휴대폰 제조사에 렌즈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디오스텍에서는 늘어나는 물량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지난해 용인 본사 옆에 제2공장을 증설한데 이어, 중국 충칭에 렌즈 공장을 인수하여 가동에 들어갔으며 현재 국내외 물량을 합쳐 월 1500만 세트 생산능력(Capa)을 바탕으로 월평균 1100만 세트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2002년 회사 설립 이후, 카메라폰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디오스텍의 매출 또한 가파른 성장률을 보였다. 2004년 164억 원, 2005년 316억 원, 2006년 439억 원, 2007년 54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에는 86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회사가 짧은 기간동안 '국내 TOP'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삼성테크윈 출신의 광학 분야 전문인력을 주축으로 한 렌즈에 대한 핵심 기술 보유를 꼽을 수 있다. 특히 광학렌즈 및 기구 설계, 전자회로 설계, 조립, 양산 등에서 쌓은 15년 이상의 노하우와 원천기술이 어우러져 지금의 디오스텍을 있게 한 원동력이 됐다.

디오스텍에서는 VGA 렌즈모듈을 비롯하여 2005년 국내 최초로 1.3Mega 렌즈모듈을 출시했고 그해 8월에는 CMOS이미지 센서용 3Mega 기계식 셔터 렌즈모듈을 선보였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렌즈와 구동장치가 결합된 일체형 렌즈모듈인 VCM액츄에이터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2Mega 이상의 고화소 카메라 모듈 자동초점 기능에 적용되는데 지난 6월부터 5메가 제품이 양산에 들어갔다. 이밖에 디지털카메라에 준하는 여러 가지 기능성 렌즈 모듈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

VGA에서 기능성 렌즈모듈에 이르기까지 이미지 센서 업체들의 모든 센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량의 렌즈모듈 제품을 미리 개발하고 구비하여 빠르게 돌아가는 시장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디오스텍만의 장점이다. 휴대폰 제조사와 함께 개발단계부터 참여하고 있는 디오스텍은 센서, 모듈업체와 기술 자료 공유 및 공동영업을 통해 시장을 계속해서 리드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또한 자체 생산능력이 있어서도 용인에 제2공장과 중국 공장의 가동을 통해 95% 이상의 높은 수출을 내고 있어 안정적인 물량공급이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이다.

김진환 부장은 "세계 휴대폰제조업체들이 5~6개 사로 정리되고 VGA급부터 시작하여 1.3메가, 2메가, 3메가 등 고화소화가 진행돼가면서 휴대폰제조사들은 카메라용 렌즈를 표준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폰카메라의 모델은 점점 작아지고 물량은 많아지면서 가격을 인하시키고 있어 렌즈모듈업체에서는 표준화의 채택 여부가 최대 이슈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미 VGA급, 1.3메가, 2메가, 3메가까지 표준화를 통해 대량생산을 하고 있는 디오스텍에서

는 표준화 모델 채택비율 강화를 위해 AF기능, 3배 줌 솔루션, 액츄에이터 등을 포함한 고기능성의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한편, 카메라폰 렌즈시장의 안정적 기반 속에 내실화를 다지면서 디오스텍은 최근에는 신규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디지털 엑스레이용 렌즈 모듈, 자동차의 후방감지 및 블랙박스용 카메라, 자동청소기 등 응용가전분야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140~160도의 VGA급 렌즈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광각렌즈에 있어서 내년 이후 상품화를 목적으로 180도 초광각 메가급 렌즈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박일 사장은 "카메라폰 렌즈모듈 사업은 조립공정 자동화를 통한 생산원가 절감 및 생산캐퍼(Capa) 증가로 수출안정화를 실현시켰다."며 "올해에는 해외공장을 중심으로 카메라폰 렌즈의 거래선 다변화와 신규사업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 중견기업으로의 한 단계 도약을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 디오스텍 용인 본사 전경



▶ 디오스텍은 제2공장과 중국 공장의 가동을 통해 95% 이상의 높은 수출을 내고 있어 안정적인 물량공급이 가능하다.



▶ 디오스텍은 렌즈모듈 조립공정 자동화를 통해 생산원가 절감 및 생산캐퍼 증가로 수출안정화를 실현시켰다.



▶▶ 인터뷰 _ (주)디오스텍 박일 사장

“렌즈업체에서 한단계 도약, 글로벌 광학·IT기업으로 거듭날 터”

디오스텍의 박일 사장은 지난 20여년 가까이 증권회사에서 몸담은 금융맨이다. 언뜻 보면 그의 이력과 광학렌즈회사가 잘 매치되지 않지만 광학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분석, 회사의 중장기 발전 비전 등에 관해 들어보면 대화를 나누는 몇분 지나지 않아 그의 자신감과 경영철학을 이해할 수 있다.

그전에 알고 있었던 디오스텍의 이미지와 첫 출근 후 느낀 점에 대해 질문하자 박일 사장은 “폰카메라 렌즈모듈 시장에서 국내 1위를 달리는 기업 인만큼 기술력과 맨파워가 뛰어난 회사라 생각했다.”며 “실제로 출근 후에는 외부에서 봤던 것보다 더욱 탄탄한 조직과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라는 깊은 인상과 함께 앞으로 광학과 IT시장에서도 충분히 1위를 할 수 있는 저력 있는 회사라 생각했다.”며 디오스텍에 대한 자긍심을 나타냈다.

물론 작년에 신규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손실이라든가 회사 덩치가 커지면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부각되기는 했지만, 현재의 디오스텍의 모습보다 더 큰 비전을 예측한 박일 사장은 뛰어난 기술력이 부가가치인 이 회사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매일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내 카메라폰 시장은 이제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물량을 늘리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내시장 점유율 1위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 1위를 목표로 해외시장쪽으로 눈을 돌려 거래선 다변화 정책을 적극 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박일 사장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끊임없는 기술개발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 등에서도 8메가 이상의 고화소 폰카메라 출시를 선언한바 있는데, 디



오스텍에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 5메가, 8메가 이상의 렌즈모듈을 개발완료하고 생산력에 힘을 쏟고 있다.

박일 사장은 “모토로라, 노키아 등의 글로벌 휴대폰 제조사들은 기존 카메라폰 렌즈를 중국이나 대만 쪽에서 공급받았으나 최근 3메가 이상 고화소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중국 등 업체들이 기술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국이나 일본 쪽으로 눈을 돌리는 상황”이라며 “디오스텍은 고화소 렌즈시장을 집중 공략해 나갈 것이며,

특히 기존 휴대폰용 렌즈의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능을 부여한 렌즈모듈을 통해 해외 카메라폰 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렌즈모듈’의 생산기지 확보차원에서 지난해 용인 제2공장 증설에 이은 중국공장의 인수는 박일 사장의 계획을 더욱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무엇보다 박일 사장이 취임 후 가장 고민하고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 신규시장의 발굴문제이다. 이를 위해 카메라폰 렌즈를 담당하는 광학사업부 외에 광전자사업부를 신설한 바 있다. 지속적인 시장조사와 개발활동을 통해 휴대폰 렌즈에 뒤를 잇는 회사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미 블루투스, 차량용 렌즈모듈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장을 내민 디오스텍은 시큐리티 분야 쪽으로도 활동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박일 사장은 “영상분야에서 입력뿐 아니라 출력에 이르기까지 렌즈의 적용분야는 무궁무진한 가운데 디오스텍은 렌즈가 들어가는 어떠한 광응용세트장비도 자신있다.”며 “일반업체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미개척 광학 및 IT분야에서 회사의 장점과 노하우를 심분 발휘하여 세계시장 1위로 우뚝 서겠다.”고 말했다.